



## “가을엔 멜로쇼”

이상윤·김하늘 주연 ‘공항 가는 길’  
KBS 2TV 오늘 밤 10시 첫 방송

가을 감성을 파고드는 TV 드라마 한 편이 찾아왔다. KBS 2TV 수목드라마 ‘공항 가는 길’ 중심인물은 항공사 승무원 최수아(김하늘 분)와 대학 강사 서도우(이상윤 분)다. 각각 가정이 있는 두 사람이 인생의 두 번째 사랑을 맞이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물론 드라마라고 손가락질할 시청자도 있겠지만, 덮어놓고 “과거의 틀, 과거의 용어로 규정짓지 말아달라”는 게 김철규 PD의 당부다. 김 PD는 20일 제작발표회에서 “현실에서 부부인지 아니면 타인인지, 동료인지 아니면 적인지, 애인인지 아니면 친구인지 애매모호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느냐”면서 “사람들의 복잡미묘한 관계를 섬세하고 감성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드라마”라고 강조했다. 근래 TV에서 보기 드물었던 정통 멜로라는 점은 ‘공항 가는 길’에 대한 기대를 키운다. 제작진은 주 무대인 공항이라는 공간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김 PD는 “공항은 우리가 늘 다니는 공간이지만 의미 미가 굉장히 크다”면서 “이별과 만남이 공존하는 곳 이면서,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관문이자 정든 집으로 가기도 하는 통로라는 점에서 이중적인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최수아는 경력 12년의 항공사 부사장으로, 남편 박진석(신성록)은 공군 출신의 기장으로 등장한다. 최수아와 우정을 나누는 친구 송미진(최미진)을 비롯한 주변 인물 다수도 공항에 머무르는 이들이다. ‘신사의 품격’ 이후 4년 만에 안방으로 돌아온 김하늘(38)은 회사와 가정에서 자기 몫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온 최수아 역을 맡았다. 최수아는 딸을 남편의 주장으로 타지에 보낸 일을 계기로 자책하던 때 대학 건축학과 강사 서도우를 우연히 만난다. 드라마는 서로 의지하게 된 최수아와 서도우의 복잡미묘한 관계를 파고든다. 김하늘은 “자극적이고 유행을 좇는 드라마가 많은데 (정통 멜로인) 우리 드라마는 대본을 접하자마자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이런 역할을 만나 영광”이라고 말했다. ‘공항 가는 길’은 김하늘이 지난 3월 한살 연하 사업가와 결혼한 이후 첫 작품이기도 하다. 그는 남편 박진석 역의 신성록과 로맨스 영화 ‘6년째 연애 중’ (2007)에서 만난 뒤 부부로 재회하게 됐다. 공군 출신인 박진석은 권위적인 성격으로 아내를 힘들게 하는 인물이다. “그때는 둘 다 미혼이었는데 이번에 부부로 나오니 느낌이 새로웠어요. 결혼하고 나니 이야기도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저도 신성록 씨도 둘 다 신혼이라 결혼 생활이 매우 즐거운데 극 중에서는 최수아와 박진석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점이 달라요.” 드라마 시청률 목표치를 20%로 잡은 김하늘은 목표 달성시 결혼 트와이스 ‘사사사’ 댄스를 다 함께 추겠다는 공약과 함께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당장 내일부터 준비하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서도우 역을 맡은 이상윤은 여느 남자처럼 거대한 야망을 품기보다는, 삶의 작은 부분을 더 중히 여기는 인물이다. 그는 그 때문에 딸이 있는 미혼모와의 결혼도 마다

치 않았다. 학예사인 그녀의 전통 예술에 대한 애정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다. 사랑으로 키워온 딸에게 닥친 사건 때문에 서도우의 일상은 급격히 흔들리고, 이때 항공사 승무원 최수아가 그의 삶에 들어온다. 이상윤은 “딸의 존재가 서도우라는 인물의 감정선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아빠 역할을) 잘 소화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제가 딸을 둔 경험은 없으니 간접 경험을 많이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자식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를 살폈고, 반대로 제가 자식인 입장에서 제 부모님을 생각하며 연기하기도 했어요.” 이상윤은 경쟁자인 SBS TV ‘질투의 화신’ 주연 조정석과 구분될 자신의 매력에 대해 “제 개인적인 강점보다는 우리 드라마와 제 캐릭터의 색깔 덕분에 차별화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공개 연인인 가수 겸 배우 유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왜 자주 이렇게 경성도에 여진이 오는지 조사를 잘해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는 같은 질문을 받은 동료 최여진을 돕기 위한 행동으로도 해석됐다. 최여진은 이 드라마에서 최수아의 입사 동기 승무원 송미진으로 등장한다. 그는 최근 어머니가 양궁 국가대표에게 보신탕을 먹는다는 이유로 인터넷에서 저속한 욕설을 퍼부는 일로 구설에 휘말린 바 있다. 이상윤의 엉뚱한 답변으로 최여진은 어머니 욕설 논란 관련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공항 가는 길’은 21일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연합뉴스

## ‘믿고 듣는’ 박효신이 돌아온다

내달 3일 정규 7집 ... 단독 공연 예매 12분만에 매진

가수 박효신(35·사진)이 6년 만의 정규 앨범인 7집 발매일을 10월3일로 확정지었다. 20일 음반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속사 클러브엔터테인먼트에 동지를 둔 박효신은 정규 7집 발매일을 이날로 결정하고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뛰어난 가창력으로 음악 팬들에게 ‘갓효신’으로 불리는 박효신은 가을 컴백만 예고했을 뿐이어서 앨범 발매일에 대한 팬들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6년 만의 앨범인 데다가 평소 그가 방송이 아닌 공연으로만 팬들을 만나 새로운 음악에 대한 기대치가 한층 높아진 상황. 몇몇 기획사 중에는 박효신의 음반 발매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이날을 피해 소속 가수의 음반 발매일을 잡겠다는 곳도 있었다. 또 일부에서 박효신이 정규 7집에 앞서 9월20일 싱글을 먼저 발표한다는 보도가 잇달아 소속사가 “9월 싱글 발매 계획은 없다”고 정정하기도 했다. 한 음반유통사 관계자는 통화에서 “‘믿고 듣는 가수’란 대중적인 신뢰도가 높은 데다가 오랜만의 앨범이어서 올해를 컴백 가수 중 대어급”이라며 “차트 장기 집권도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정규 7집에는 신곡과 함께 박효신이 2년 전부터 디지털 싱글로 공개한 세곡이 함께 수록된다. 박효신은 2010년 6집 ‘기프트 파트. 2’ 이후 ‘야생화’(2014)와 ‘해피투게더’(2014), ‘사인 유어 라이트’(Shine Your Light)(2015) 등의 싱글로 음원차트 정상을 지켰고 이중 ‘야생화’는 방송 활동 없이 2년 넘게 차트에 머물며 장수곡으로 자리매김했다. 새 앨범 수록곡을 라이브로 처음 공개하는 단독 공연은 예매 시작 12분 만에 5만5000석이 매진되는 티켓 파워를 보여줬다. 공연은 10월 8일과 9일, 11일, 13일, 15~16일 등 총 6회로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 TV 프로그램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육성PD의 자연 담은 한끼 10 (월·수·목·금·토·일·휴일)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미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45 2016 리우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방송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한국인의 밤상 50 야생화(재)	00 신인 리얼 도전기 루키(재)	00 옥중화(재)	00 닥터 365 05 위대한 유산 30 민영방송 공동기획 (물은 생명이다)
12	00 KBS 뉴스 12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재)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미니시리즈 (W)(재)	00 SBS 12뉴스 50 닥터 365 55 테마스페셜 55 TV 블로그 품지락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네트워킹 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55 별별가족			
2	00 다큐드라마(중첩) (재) 55 시사기획 창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20 텔레노스터리(재) 25 드림 주니어 스페셜 55 텔레노스터리(재)	00 열린 TV 시청자세상
3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자동공부책상 위키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55 모두모두 쇼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고향이 보인다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꼬마야사 콩도령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MBC 이브닝 뉴스	00 예술론 또봇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재) 15 건강원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7	00 KBS 뉴스7 35 필통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 블로그 품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25 일일연속극 <별난가족>	30 글로벌24 55 신인 리얼 도전기 루키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 발굴단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토론'10' 55 숨터	00 공항 가는 길	00 수목드라마 <쇼팽왕 루이>	00 수목드라마 <질투의 화신>
11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빅뱅 더 콘서트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0 웃음을 찾는 사람들
12	30 동행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30 MBC 뉴스 24 50 메이저리그다이아리	30 나이트 라인

###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10:30 한국기행	15:20 꼬마기사 마이크	20:50 세계테마기행 <지구의 생명을 보라, 아이슬란드 - 위대한 자연의 법칙>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미국 서부 트레일그랜드캐니언>	10:50 최고의 요리비결 <해물 모듬전골>	15:35 오솔상자(2)	
06:00 한국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5:45 레이디버(3재)	21:30 한국기행 <그 신에 오르는 까닭은?>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6:15 두다다콩	21:50 EBS 다큐 프라임 <하라산 특대개>
0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6:30 Why - '최고! 호기심탐지(재)	22:45 극한직업 <갈치 잡는 사람들>
07:30 뽀뽀뽀뽀 뽀로로	12:40 지식채널 e	16:45 덩동영 유치원 1~3(재)	23:35 장수의 비밀
07:45 꼬마버스 타요	12:45 EBS 초대석	17:30 꼬마버스 타요(재)	24:05 세상의 모든 범죄 <왜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조종 당하게 될까?>
08:00 덩동영 유치원 1~3	13:40 오 마이 미래 2035	17:45 뽀뽀뽀뽀 뽀로로(재)	24:10 EBS 초대석
08:45 최고다 호기심 천국	13:50 그림을 그려요(2)	18:00 생방송 특집! 보니하니1~4	
09:00 주사위 오징어 퀴비주	13:55 코코몽(3재)	19:00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09:15 시계마을 타키토	14:25 책과 땅	19:30 EBS 뉴스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4:55 모피와 친구들	19:50 명의(재)	
09:40 아버지의 귀환	15:05 두기탐험대	20:40 다큐 오늘 <씨씨씨와 옥희씨>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1일(음 8월 21일 丙午)

子	48년생 일찍부터 서둘러야 늦게라도 겨우 도망치리라. 60년생 일상을 내려놓고 파안대소할 일이 있겠다. 72년생 여기저기에 위험한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으니 잘 살펴보고 다니는 것이 무난하리라. 84년생 치밀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58, 82	午	42년생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도 괜찮으리라. 54년생 실제효력이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66년생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영역과 관계하리라. 78년생 시행착오를 최소화 한다는 관점이라면 마음이 편하겠겠다. 행운의 숫자 : 43, 11
丑	49년생 가장 근원적인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해결책은 쉽게 나온다. 61년생 무리한다면 머지않아 곤혹스러워지리라. 73년생 새로운 위상을 여는 전전목목은 보게 될 것이다. 85년생 끝만 보고 평가하면 실수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16, 78	未	43년생 과잉 신뢰는 진로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55년생 뜻은 있으나 동력이 약한 이치이니 힘을 보충해야 한다. 67년생 자신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어 흡족하겠다. 79년생 뜨거운 상상의 기운이 샘솟으니 기대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74, 84
寅	50년생 기회가 도래하고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하자. 62년생 각 계 격파를 하는 것이 용이하므로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74년생 숫대를 갖고 소신껏 행하면 무리가 없다. 86년생 원칙대로 처리한다면 면책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3, 14	申	44년생 학수고대 해왔던 바가 성사되리라. 56년생 예감하여 왔던 바가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68년생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적인 상황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80년생 의미가 없으니 넘어가도 된다. 행운의 숫자 : 20, 64
卯	51년생 깊이는 중요하지만 폭넓은 안목으로 임하는 것이 성사로 향하는 길이다. 63년생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상책이니라. 75년생 자신과 함께 행동함이 유리할 것이다. 87년생 종합적이고 계속적인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62, 37	酉	45년생 손쉬운 방법으로 처리해야 손실이 없을 것이다. 57년생 열린 사고로 임해야 무난하게 실행될 것이다. 69년생 생각보다 나은 결과가 나올 것이니 우려할 필요가 없다. 81년생 실과 허를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합당하다. 행운의 숫자 : 12, 60
辰	40년생 실제로는 까다로운 것이다. 52년생 여러 사람의 의견을 참고하여 판단하라. 64년생 움직임이 약하지만 실속은 있는 편이다. 76년생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88년생 제대로 역할을 할 때가 되었다. 행운의 숫자 : 85, 34	戌	46년생 약화된 부분을 보완하고 진용을 정비해야 할 성국에 놓여 있다. 58년생 간접적인 조처는 가끔씩 피하는 것이 합당하다. 70년생 구체성이 요구된다. 82년생 한 곳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행운의 숫자 : 40, 67
巳	41년생 대고는 없으나 공허할 뿐이다. 53년생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판도다. 65년생 흥의 기운이 사라지면서 길성이 비추어지고 있다. 77년생 절대로 서두르지 마라. 89년생 즉시 투단의 조지들을 취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01, 97	亥	47년생 목적이 부합하지 않다면 불필요한 수고로움만 더 할 뿐이다. 59년생 단숨에 처리하지 않는다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71년생 소기의 성과를 거두리라. 83년생 기대 해왔던 바가 실망시키는 정황이다. 행운의 숫자 : 02, 94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